

# 생명평화의 길 10년 미래를 말하다

## 불교환경연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10월 14일 후원의 밤 개최

환경문제를 넘어 각 사회현안에 불교계를 대표해 활동해 온 '환경보살'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가 태동한지 10년만에 첫 후원의 밤 '생명평화 길어온 10년 나아갈 10년'을 연다.

불교환경연대는 8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14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리는 후원의 밤은 불교계 환경운동의 지난 십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행사에서 불교환경연대는 조직안정화와 인재발사에 주안점을 둔 3대 불사 △불교NGO센터 건립 △불교

환경문화연구소 설립 △불교환경인재발사와 그에 따른 사안들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3대 불사 내용을 살펴보면, 불교NGO센터 건립으로 불교환경연대를 비롯한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생명나눔실천본부와 대불청, 대불련 등의 안정적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불교환경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불교환경문화연구소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 재원확보와 연구소개원을 계획하고 있다. 불교의 미래인 인재발사는 불교환경장학재단 설립을 목표로 인재발사추진위원회를 조성한 뒤 불교환경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불교환경연대 정우식 사무처장은 "3대 비전 중 인재발사는 그동안 미진한 부분이였다. 앞으로는 청소년 포교에 주력할 것"이라며 "인재발사추진위원회 설치, 불교환경장학생을 선발하고 불교환경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위원장 현각 스님은 "인적기반과 경제적 기반 확보를 넘어 불교환경연대의 미래를 밝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후원의 밤을 통해 3대 불사와 향후 10년 비전 등 교계 사회운동의 기반이 될 계획도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불교환경연대는 그동안 빈그릇운동 전개, 불교환경교육, 어린이불교

생태학교 운영을 통해 환경보존에 힘써왔을 뿐 아니라 지리산 살리기·땀 백지화운동을 시작으로 북한산 천선산 미륵산 가야산, 세만금 갯벌 지키기, 4대강정비 사업 등 굵직한 사회현안에서 앞장서 불교적 생명관을 실천해왔다.

정우식 사무처장은 "그간 사회이슈마다 동분서주하며 뛰어 정작 불교환경연대의 토대를 닦는데 힘써지 못한 면이 있다. 이번 행사는 불교환경연대 진로의 변곡점이자, 새로운 10년을 향한 출발점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 격려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02)720-1654

박선주 기자 sunjoo0802@naver.com

# 이철규 경무관 훈훈한 기부 화제

## 아름다운동행에 보시금 2000만원 전달



이철규 경무관 가족이 기관 스님을 예방하고 기부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기관 스님, 부인 김희경씨, 딸 이경희씨, 사위 홍순성씨와 그의 모친 안혜숙씨.

한 경무관이 자녀의 결혼비용을 아껴 소외아동을 위해 2000만원을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 교통관리과 이철규 경무관이 그 주인공. 이 경무관은 8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집견실에서 조계종 아름다운동행이사장 기관에 보시금을 전달했다.

이날 업무관계로 복잡한 이철규 경무관을 대신해 부인 김희경씨, 딸 이경희(28세), 사위인 홍순성(32세)과 그의 모친 안혜숙씨가 직접 기관 스님을 예방해 기부금을 전달했다.

자비나눔운동에 깊은 호감과 관심이 많았던 이 경무관은 지난 6월 자녀 결혼비용을 아껴 모아진 2000만원을 소외된 아동과 노인을 위해서 달라고 아름다운동행에 기부하는 사를 밝혀왔다. 이 경무관은 평소에도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과 노인들을 후원해왔으며 특히 낙산

이 불심이 깊고 항상 이웃을 위해 베푸는 조인을 평소 자주했는데 결혼을 기념해 이런 뜻 깊은 일에 동참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서울 자생한방병원 한의사이기도 한 그는 "최근에 아내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에 의료봉사를 갔었는데, 앞으로 모 이웃과 사회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경무관의 딸 경희씨는 "공직자인 아버지는 당신의 일에 언제나 엄격하고 원칙을 지켜왔다"며 "아버지처럼 보살핌을 실천하며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자비나눔을 통해 모인 기금은 7억5000만원이다. 이중 1차로 지난 7월 저소득, 실직가정, 다문화가정에 치료비, 긴급생계비, 쌀 지원사업에 2억5000만원이 집행됐다. 앞으로 동절기 지원사업, 소외계층 후원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어나 기자

사 공부방과 노인무료급식소에 지속적인 후원활동을 해왔다.

기관 스님은 "갈수록 세상이 각박하고 어려운데, 이렇게 좋은 마음을 내줘서 정말 고맙다. 뜻있는 일에 잘 쓰도록 힘쓰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경무관의 부인 김희경씨는 "신심이 부족하지만 사돈 어른들의 깊은 불심으로 좋은 일에 동참하게 됐다. 매우 뿌듯하고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위인 홍순성씨는 "양가 부모님

# "여러분 우리 책 읽어주세요"

## 불출협·동대 산하 중립학교 워크숍

불교출판문화협회와 동국대 산하 8개 중립학교가 함께 청소년 불서 읽기 붐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불교출판문화협회 회장 지홍 스님(불광사 주지)은 8월 22일 동대부(여고, 동대부(여중, 금산중·고, 흥제중, 은석초교)로 구성된 동국대 산하 중립학교 교장단 워크숍에 참석,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어린이·청소년 불서 출판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향, 보급망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지홍 스님은 "기독교

문화가 팽배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어린이가 청소년들에게 불교적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중립학교 도서관에서 많은 불서를 보유하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불교와 접하게 하고, 나아가 독서토론회 개설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교장선생님들은 "불서가 읽힐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데 뜻을 모으고 △어린이 청소년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불서 출판 △불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교육현장(선생님들)의 여론 반영 등을 요청했다.

김성우 기자

# 김영선씨 명함꽃이 등 대상

## 제3회 불교문화상품공모전 시상식 열려

한국불교의 문화적 가치를 반영한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 제3회 불교문화상품공모전 시상식이 8월 24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불교문화상품 공모전에는 책갈피, USB, 도장, 메모지 등 일반인들이 구매 욕구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을 위주로 불교 문화 상품디자인 및 제품디자인 2개 부문에서 230여 점이 접수됐다. 이 중 총 2차에 걸쳐 심사한 결과 김영선씨의 명함꽃이 '피어나다'가 대상으로 선정 상금 300만원의 영예를 안았다.

이상언 기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연꽃을 모티브로한 책갈피와 명함꽃이는 실용성, 장식성, 창의성을 겸비한 작품으로 현대적이면서도 불교의 이미지를 잘 표현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심사평을 했다.

한편, 우수상에는 이경국 씨의 큰 USB2.0 HUB가 선정됐으며, 이주연 씨의 '여인의 향기'의 장려상 5명, 특선 10명, 입선 14명 총 32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수상작은 8월 24-31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전시관에서 일반인들에게 선보였다.



공모전 최우수 수상작인 김영선씨의 '피어나다'.

# 제천시 종교행사 공식후원 파문

## '제천시시화대성회' 관공서 후원 드러나

제천시기독교연합회(회장 정태영 목사) 주최로 9월 14-16일 제천시 제천제일감리교회에서 열리는 '제천시시화대성회'를 제천시청, 제천시의회, 제천경찰서 등이 공식후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한 제천시민의 제보에 따르면 제천시 관공서 등은 '제천시시화대성회' 후원공고를 8월 19일자 제천일보에 게재했다.

이에 대해 제천시 홍보실은 "시청 내 기독교 친목 단체인 '시목협의회'를 시청명의로 부풀려 표기한 것이다. 제천시청 차원에서가 아닌 시목협의회의 의견을 알아 달라. 시목협의회는 오래전부터 일년에 한 두 차례씩 모여 제천시시화대성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고 후원은 자연스럽게 결정된 것 같다. 오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선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 용산문제 중재 요청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계종 총무원장 기관 스님을 예방해 용산문제와 관련 불교계가 중재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8월 21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5층 사찰음식전문점 '바루'에서 총무원장 기관 스님과 오찬을 함께 하며 용산문제에 '종교계 어른들이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기관 스님은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이런 중재요청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 서울시는 1월 20일 참사이후 단 한 건의 교섭조차 없이 대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세수 하려는 작태'라는 일부 비난 속에 이뤄진 서울시장의 이번 종교계 방문으로 용산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선주 기자

## 남해 제일 관음기도도량

# 향일암

귀의삼보하옵고  
부처님의 가피가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남해 제일 관음기도 도량 금오산 향일암  
대웅전 황금단청 불사가 원만하게 회향하게 되어  
이에 낙성식을 봉행합니다  
복과 지혜를 습수하는 소중한 인연으로  
감사와 행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뜻깊은 자리를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3년 8월  
주지 양원문 신도회장 최반야심 합장

[www.hyangiram.org](http://www.hyangiram.org)



## ☉ 향일암 대웅전 낙성법회 ☉

- 일시\_ 불기2553(2009)년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 장소\_ 향일암 대웅전
- 문의\_ 061)644-4742 (중무소)


**남해 제일 관음기도도량 금오산 향일암**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울림리 산 7번지  
 전화 061-644-4742 팩스 061-644-2390